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 분석

Analysis of Time Use of Mother and Father in Single-Parent Family

서원대학교 생활복지학과

부교수 조영희*

Dept. of Life Welfare, Seowo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o, Young-Hee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time use on weekdays and weekends by the time amount of each activities and compare time amounts of single parent with that of two parents family. So two methods were applied, one was secondary data analysis ,the other was deep-interview.

The major findings of analysis of time use were as follows: 1) Mothers in single parent family used significantly less time amount of household labor and family care than them in two parent family. 2) Fathers in single parent family used significantly more time amount of household labor but used significantly less time amounts of family care than them in two parent family. And 3) Mothers in single parent family used significantly more time amounts of household labor and family care than fathers in single parent family.

The results of deep-interview were as follows; roughly the amounts of household labor time, family care time, leisure time were of little quantity and absence of spouse, family size, family life cycle stage, economic condition, sex role identity, psychological factor maybe seemed important.

▲주요어(key words) : 한부모가족(single parent family), 생활시간(time use), 가정관리시간(household labor time), 가족보살피기시간(family care time),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leisure time)

1. 서론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가족유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사회에서의 한부모가족의 증가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995년 전국가구 대비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8.6%이며, 2000년에는 그 비율이 9.4%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5년의 경우 한부모가구 중 모자가구는 82.1%, 부자가구는 17.9%로 모자가구의 비율이 월등히(4배정도) 높아, 우리 사회의 결혼제도의 특성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양적인 증가가 우선적인 원인이겠지만 그와 함께 주목을 끌고있는 것은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이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즉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줄어드는 반면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발생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최경석, 2001).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가족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한부모는 배우자의 부재에 심리적 으로 적응해야하고, 가계부양자와 가사노동자로서의 이중역할을 해야 하고, 축소된 가족관계에 적응해야하고, 또한 혼자서 자녀 양육을 도맡아야만 하는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욱이 전통적인 친족지원체계가 사라지고 오늘날 핵가족이 보편화 되면서 한부모가족의 문제는 더 이상 가족체계에만 맡겨둘 수 없는, 즉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 주 저 자 : 조영희(E-mail : choyh@seowon.ac.kr)

그 지원대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생활시간연구는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가족의 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생활시간연구에서 한부모가족은 연구의 대상으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소원했던 것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뢰할만한 공식적인 대규모의 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상황에서 생활시간연구를 통한 한부모가족에 연구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1999년 통계청에서 전국규모의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시간분석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자료의 양적 분석은 보다 구체적인 생활내용까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시간에 대한 하나의 탐색적 연구로서,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부모가족의 부와 모의 생활시간에 대한 양적 분석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접근으로서 사례면접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와 정책수립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II.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 관련 특성

생활시간구조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부·모가 갖는 우선적인 특징은 가계부양자와 가사노동자로서의 이중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여건 때문에 다른 생활시간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테면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취업주부의 경우가 그러하듯 시간제약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 비탄력적인 수입노동시간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가시간을 즐기거나 혹은 자녀돌보는 시간, 가정관리시간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각 한부모가족이 처해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한부모가족이 모자가족인가 부자가족인가 하는 것은 생활시간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생활시간사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이 처하게 되는 경제적 여건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 논의에서는 한부모가족을 통틀어서 얘기하지만 사실 한부모가족은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Millar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있어서 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부자가족의 비율은 적을 뿐만 아니라 빈곤을 겪는 경향도 적으며, 빈곤을 겪는 기간도 모자가족이 더 길다는 것이다(Alock, 1997 김윤정, 2000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이 되는 시점은 모자가족의 경우 연령별 상황을 살펴보면 35세-44세 사이에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 시기의 중년 남성들이 왕성한 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0년 통계에 의하면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남녀 모두 35~39세이며, 남자는 그 다음이 40~44세, 45~49세이고, 여성의 경우 30~34, 40~44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자가족이 35~44세에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최경석, 2001).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주기상 이 시기는 경제적 축적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이 때 혼자인 부 혹은 모가 직업이 없다면 그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김정자(1985)의 연구에서, 한부모가족이 되기 전후의 직업변화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무직이었다가 한부모가족이 된 후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부는 3.9%, 모는 53.3%이며, 한부모가족이 되기 전에도 직업이 있었고, 현재에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부는 69.4%, 모는 21.2%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모자가족의 열악성이 더 심각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직업을 새로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모의 불리한 취업조건-인적자본으로서의 취약성,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으로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된 고용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모자가족의 단순노무직 비율(45.4%)이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원조도 여성과 아동을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정도의 액수를 넘지 않고 있는(김영화 외, 2002) 실정이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가사노동과 수입노동의 이중역할로 인한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경제적인 지출이 따르게 된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모자가족은 특히 이중역할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가사노동표준을 낮추거나 과중한 시간부담을 안을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은 여가시간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여가장애에 관한 연구들(김외숙, 1991; 김길양, 1991; 홍성희, 1991)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여가활동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특히 모자가족의 경우 여가장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부·모의 역할재조정은 불가피한 문제인데, 부자가족은 모자가족과는 달리 가사노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자, 1991).

오늘날 가사노동이 사회화되고 다양한 가전제품이 가정에 들어오면서 한부모가족의 부도 과거와는 달리 가사수행에 적응하기가 수월해졌으며, 모 또한 취업이 용이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인식으로 한부모가족의 부는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수행이 낮은 편이며, 다른 가족들로부터 가사도움을 받는 편이다(김정자, 1985). 취업부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역할인식을 조사한 연구(석드보라 외, 1999)에 의하면, 남성은 가사에 책임을 느끼지도 않으며 수행하지도 않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식생활 영역에 대한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가사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자녀돌보기, 대화하기 등 자녀와 관련된 일들은 자신의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부모가족 부의 가사노동자로서의 낮은 자기역할인식은 식사준비와 같은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편 공적인 가사지원체계는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사지원프로그램의 대상자는 기혼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가사보조(심부름, 외출보조, 청소, 빨래, 반찬담그기 등)와 육아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의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가사지원 프로그램(김윤정, 2001) 정도가 있을 뿐이다.

또한 생활시간에 가족구성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배우자의 부재로 한부모가족은 가족수가 일반가족의 경우보다 적은 경향이 있다. 가족수는 가사노동자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가족수가 적으면 요구되는 가정관리나 가족보살피는 시간이 적게 된다. 특히 우리의 가족관계상 모자가족에서 그 차이가 더 나타날 것으로 본다. 즉 남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조부모돌보기 및 그 외 친족관계유지 등과 관련된 시간도 요구되지 않을 뿐더러 배우자의 부재는 생활의 형식갖추기라는 측면에서 가정관리시간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든다면 식탁을 차릴 때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일정한 식탁의 형식을 갖춘다거나 남편의 기호에 맞게 반찬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자가족의 경우 이러한 형식을 요구하는 남편의 부재로 그 더 이상 그런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부모형제와 같은 동거 가족은 시간사용에 일관성 있는 영향을 주기 보다는 동거가족원이 가정관리나 가족돌보기를 도울 수 있는 경우인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체로 모자가족보다는 부자가족이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높으며, 부자가족 부의 가사수행 수준이 모자가족 모의 25%에 불과하다(김정자, 1985)는 연구 결과를 보면 부자가족의 경우 동거하는 가족원으로부터 가사노동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한부모가족이 갖는 심리적 요인도 생활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배우자의 부재는 가족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자가족의 경우 그 동안 부에게 집중되어 있던 정서적 유대감과 역할을 새로운 상황에서 표출해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서, 심리적인 증상을 나타낸다고(최경석, 2001) 했으며, 경제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상실감과 소외감이 더욱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자연히 주변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지탱하기 어렵게 되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 부자가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고된 바가 적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을 조사한 연구(신수아 외, 2001)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여성가장은 심각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

지는 않으나 무력감의 수준은 높은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III.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시간조사자료의 분석과 사례면접을 통해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제한, 즉 한부모가족의 표본크기가 너무 적고, 조사 대상의 소득 미공개 되었고, 심리적 변수가 조사에서 누락됨에 따라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의 차이에 대한 관련요인의 독립적 효과를 분석하지 못함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점은 다음의 후속 연구 및 시간조사에서 보완되어 이루어질 부분이다. 그리고 사례면접의 경우 사례 수(학술대회발표와 관련하여 영역별 면접 사례 수를 5명 정도로 논의하였음)가 다소 부족하고, 비교집단으로서의 동일 조건의 양부모가족의 부·모에 대한 면접이 병행되지 않아 분석내용이 한부모가족이라는 특성 때문만으로 논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부의 경우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면접대상이 한 명에 그쳤기 때문에 부자가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이 점도 후속적인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편적이지만 부자가족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IV.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부·모의 생활시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그들의 일상생활이 양부모가족의 경우와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같은 한부모가족이라도 부자가족과 모자가족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한부모가족의 부와 모간 생활시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두 가지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하나는 시간사용에 대한 양적 접근으로,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구조를 분석하고자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과 양부모가족 부·모 경우와의 비교분석이다. 분석대상은 연령이 3,40대로, 큰 자녀 연령이 만18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였다. 그리고 요일별 생활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생활시간의 분류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행동분류의 대분류를 사용하였다. 이 대분류는 9개 영역, 즉 개인유지, 일,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관련되는 활동들은 <표 1>과 같다.

< 표 1 >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영역	활동
개인유지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의료적), 기타 개인유지
일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업어업일, 구직활동, 일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관련 행동
학습	학생의 학교 학습, 학생의 학교외 학습, 학습관련 물품구입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지역공동체 활동, 사회참여 활동, 자원봉사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일반인의 학습, 종교 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의 여가활동, 교제활동 관련 물품구입, 기타 여가 관련 활동
이동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기타 이동
기타	기타

자료의 분석에는 빈도(백분율), T-검증을 적용하였으며, 그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표본수가 매우 적어 T-검증을 위해 표본에 대한 동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른 또 하나는 질적 접근으로, 한부모가족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례면접을 하였다. 이 방법은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양적 분석에서 생활시간에 대한 관련요인의 독립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던 점을 다소 보완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양적 접근에서 파악할 수 없는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과 관련된 특성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면접대상은 양적 분석의 경우와 동일하되 한부모가족의 부·모만을 포함시켰다. 즉 3,40대의 한부모가족의 부·모로서, 큰 자녀 연령이 만18세 이하인 사람으로, 현재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5명이 사례면접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자료수집은 2003. 3. 11~3. 27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 사례의 면접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은 먼저 면접일과 가장 가까운 평일, 일요일 각각의 생활시간 사용을 회상하게 하여 연구자가 시간사용을 기록하고, 세 활동영역, 즉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여가 시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V.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 분석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자료에서 추출된 한부모가족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2>과 같다.

< 표 2 >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빈도(%)

변수	구분	모		부	
		양부모	한부모	양부모	한 부모
연령	30대	3749 (69.55)	86 (45.99)	3037 (55.40)	38 (40.0)
	40대	1641 (30.45)	101 (54.01)	1445 (44.60)	57 (60.0)
	계	5390 (100.0)	187 (100.0)	5482 (100.0)	95 (100.0)
교육수준	초졸이하	368 (6.83)	40 (21.39)	221 (4.03)	19 (20.0)
	중졸	1048 (19.44)	45 (24.06)	616 (11.24)	22 (23.16)
	고졸	2996 (55.58)	84 (44.92)	2792 (50.93)	42 (44.21)
	전문대졸 이상	978 (18.14)	18 (9.63)	1853 (33.80)	12 (12.63)
	계	5390 (100.0)	187 (100.0)	5842 (100.0)	95 (100.0)
자녀수	1명	1256 (23.30)	94 (50.27)	1334 (24.33)	40 (42.11)
	2명	3486 (64.68)	79 (42.25)	3514 (64.10)	48 (50.53)
	3명	571 (10.59)	12 (6.42)	565 (10.31)	6 (6.32)
	4명이상	79 (1.43)	2 (1.07)	69 (1.26)	1 (1.05)
	계	5390 (100.0)	187 (100.0)	5482 (100.0)	95 (100.0)
큰자녀연령	만7세 미만	1069 (19.83)	9 (4.81)	1609 (29.35)	15 (15.79)
	만7-만13세 미만	2068 (30.18)	58 (31.02)	1956 (35.68)	30 (31.58)
	만13세-만16세 미만	1002 (19.52)	46 (24.60)	935 (17.06)	25 (26.31)
	만16-만19세 미만	211 (22.47)	74 (39.57)	982 (17.91)	25 (26.31)
	계	5390 (100.0)	187 (100.0)	5482 (100.0)	95 (100.0)
다른 가족 동거 여부	비동거	4715 (87.48)	168 (89.84)	4781 (87.21)	61 (64.21)
	부모와 동거	536 (9.94)	16 (8.56)	555 (10.12)	29 (30.53)
	미혼형제·자매와 동거	139 (2.58)	3 (1.60)	146 (2.66)	5 (5.26)
	계	5390 (100.0)	187 (100.0)	5482 (100.0)	95 (100.0)
취업 여부	취업	2931 (54.38)	154 (82.35)	5154 (94.02)	73 (76.84)
	비취업	2459 (45.62)	33 (17.65)	328 (5.98)	22 (23.16)
	계	5390 (100.0)	187 (100.0)	5482 (100.0)	95 (100.0)

우선 본 연구의 전체 분석대상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에 대한 한부모가족의 비율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그리고 연령에 있어서는 양부모가족 부·모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3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비해 한부모가족 부·모의 경우 4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수준이 1/5에 이르는 정도로 한부모가족 부·모가 양부모가족의 경우보다 낮다. 자녀수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족은 자녀 1명의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양부모가족에서는 자녀 2명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큰 자녀 연령에 있어서는 양부모가족의 경우만 6세 이하의 자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자녀 비율은 한부모가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양부모가족 부·모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30대에,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4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부모가족과 모자가족은 부모 및 다른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는데(거의 87, 89% 정도) 비해, 상대적으로 부자가족의 경우에는 부모 및 다른 가족과의 동거 비율이 높다. 특히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30% 정도가 된다. 취업 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의 경우와 부의 경우가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의 경우는 한부모가족이 월등히 높고, 부의 경우는 양부모가족이 오히려 높다. 또 한부모가족의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비교하면 모자가족이 부자가족의 경우보다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인 30,40대의 한부모가족 부와 모의 생활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1999 생활시간조사」자료에서 큰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3,40대의 표본을 뽑아, 이들을 각각 성별과 취업여부에 따라 각각 분류하고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부와 모를 각각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분류 결과 한부모가족의 부의 비취업 표본은 너무 적고 양부모가족의 부의 경우 비취업률이 매우 낮아, 분석과정에서 두 집단의 취업부의 비교분석은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비취업모의 생활시간 비교분석/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취업부의 생활시간 비교분석/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취업부의 생활시간 비교분석/ 한부모가족의 취업부와 취업모의 생활시간 비교분석으로 이루어졌다.

1)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비취업모의 생활시간 비교분석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비취업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주된 생활영역은 '가족보살피기'로 나타났다. 평일, 주말 모두 한부모가족 비취업모가 가족보살피기에 쓰는 시간이 양부모가족의 비취업모의 1/2 내외로, 평일, 주말 모두 1시간 정도 적은 시간을 쓰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간

< 표 3 >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비취업모의 생활시간 비교

단위 : 분(평균,SD)

생활영역 (평일)	양부모 (N=2003)	한부모 (N=33)	차이	t값
개인유지	583.0(90.5)	668.5(77.8)	-75.5	-1.91
일	8.8(24.5)	8.3(24.7)	0.4	0.08
학습	0.7(13.9)	0(0)	0.7	0.38
가정관리	297.6 (139.9)	244.4 (174.1)	53.2	2.59 **
가족 보살피기	128.8 (80.9)	72.8 (67.8)	56.0	2.49 *
참여 및 봉사활동	6.0(20.6)	0(0)	6.0	8.41 ***
교제 및 여가활동	321.3(145.5)	354.6(144.5)	-33.2	-0.92
이동	70.8(69.4)	77.0(59.9)	-6.2	-0.57
기타	13.1(14.3)	14.3(14.5)	-1.2	-0.32
생활영역 (토요일)	양부모 (N=953)	한부모 (N=33)	차이	t값
개인유지	602.5(94.1)	687.7(200.1)	-85.2	-1.53
일	6.5(40.8)	0(0)	6.5	4.98 *
학습	3.6(69.3)	0(0)	3.6	1.61
가정관리	295.6(120.4)	256.2(148.5)	39.4	1.17
가족 보살피기	108.8(111.8)	46.2(71.8)	62.6	2.02 *
참여 및 봉사활동	2.8(24.9)	0.8(2.8)	2.0	1.81
교제 및 여가활동	334.4(137.9)	313.1(160.7)	21.3	0.55
이동	76.6(72.0)	128.5(137.5)	-51.9	-1.36
기타	12.4(18.7)	7.7(15.9)	4.7	0.9
생활영역 (일요일)	양부모 (N=983)	한부모 (N=33)	차이	t값
개인유지	645.8(104.9)	668.2(75.2)	-22.4	-0.70
일	8.3(46.0)	0(0)	8.3	5.58 ***
학습	0.5(14.0)	0(0)	0.5	1.11
가정관리	264.9(118.8)	249.1(133.9)	15.8	0.44
가족 보살피기	89.5(110.6)	34.5(39.1)	54.9	4.46 ***
참여 및 봉사활동	1.3(16.9)	0.9(3.0)	0.4	0.41
교제 및 여가활동	336.8(146.0)	391.8(158.3)	-55.0	-1.24
이동	83.3(95.7)	86.4(54.5)	-3.1	0.18
기타	9.6(15.3)	9.1(11.4)	0.5	0.11

* p< .05 ** p< .01 *** p< .001

사용의 차이는 우선적으로 가족구성고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이를테면 한부모가족의 경우 배우자(남편) 보살피는 시간을 쓰지 않을 것이고, 또한 본 분석자료에서 한부모가족이 양부모가족보다 자녀수가 적은 편이고 큰자녀 연령은 다소 많은 편이어서 자녀 돌보는 데에 상대적으로 보다 적은 시간을 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요일별로 보면, 평일의 경우 양부모가족의 비취업모는 2시간을 상회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은 70여분 정도이며, 주말에는 두 집단 모두 평일의 가족보살피기 시간보다 2,30분 정도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들의 등교 및 학습, 배우자의 출근 등과 관련된 보살핌의 시간이 평일에 더 필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한편 평일 가정관리 시간에 있어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부모가족의 비취업모는 4시간 정도, 양부모가족의 비취업모는 4시간 30분에서 5시간 정도로 한부모가족 비취업모의 가정관리 시간이 더 적었다. 이 영역 또한 가족보살피기와 마찬가지로 우선 가족구성(자녀의 수, 배우자 유무, 자녀의 연령 등)과 관련될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평일의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양부모가족의 비취업모가 6분 정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영역에 있어서는 주말에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부모가족의 경우 비록 적지만 아마도 이것은 비취업모이기 때문에 무급의 가족종사일이거나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혹은 그와 관련된 기타 활동에 쓰인 시간일 것이다. 양부모가족의 비취업모의 경우 일 영역에 쓰인 시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전체적인 시간 사용을 보면 '일' '참여 및 봉사활동'과 '학습'에 사용된 시간이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집단간 '개인유지'시간은 양부모가족의 경우 10시간 또는 10시간 30분 정도, 한부모가족은 11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교제 및 여가활동'에 쓰인 시간은 양부모가족이 대략 5시간 30분 정도이고, 한부모가족의 경우 5시간~6시간 30분 정도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되면 남은 한 부 혹은 모가 경제적인 부양과 가사 일을 동시에 하계됨을 가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의 비취업모라는 상황은 경제적 부양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우리는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경우는 자발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고, 또 한 경우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이를테면 취업에 필요한 적절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현재 구직 중에 있거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중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사용에 있어서 양부모가족의 비취업모와는 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의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례면접 등의 방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2)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취업모의 생활시간 비교분석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두 집단간에 뚜렷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의 세 영역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양상은 평일, 주말 모두 '일' 영역의 시간은 한부모가족이 많고,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양부모가족이 더 많다.

'일'의 시간에 있어 평일 양부모가족의 취업모의 6시간 정도와 비교할 때 한부모가족의 취업모는 7시간을 다소 상회하여 두 집단간에는 대략 70분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토요일의 경우는 양부모가족은 5시간 반정도, 한부모가족은 평일과 마찬가지로 7시간을 상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두 집단간에 100분

< 표 4 >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취업모의 생활시간 비교
단위 : 분(평균,SD)

생활영역 (평일)	양부모 (N=2399)	한부모 (N=124)	차이	t값
개인유지	574.8(81.5)	576.0(108.4)	-1.2	-0.13
일	367.4(190.1)	438.9(188.7)	-71.5	-4.09 ***
학습	0.8(13.4)	0(0)	0.8	2.93 ***
가정관리	182.1(96.0)	133.8(70.1)	48.4	7.29 ***
가족 보살피기	50.1(62.9)	16.4(28.4)	33.7	11.78 ***
참여 및 봉사활동	2.2(18.3)	6.7(56.3)	-4.5	-0.88
교제 및 여가활동	171.1(114.2)	172.4(115.3)	-1.3	-0.13
이동	80.5(55.8)	86.4(64.6)	-5.9	-1.00
기타	11.0(16.0)	9.67(14.0)	1.6	1.26
생활영역 (토요일)	양부모 (N=1129)	한부모 (N=60)	차이	t값
개인유지	579.2(88.2)	564.2(122.1)	15.0	0.94
일	336.8(208.1)	438.3(215.6)	-101.5	-3.67 ***
학습	0.2(7.2)	0(0)	0.2	1.16
가정관리	191.7(104.7)	136.5(91.3)	55.2	4.00 ***
가족 보살피기	47.1(62.7)	24.5(48.5)	22.6	3.46 ***
참여 및 봉사활동	2.3(18.4)	1.5(11.6)	0.75	0.47
교제 및 여가활동	186.0(121.5)	172.5(132.9)	13.5	0.83
이동	85.8(64.5)	92.8(76.2)	-7.0	-0.82
기타	10.9(17.3)	9.67(13.3)	1.2	-0.71
생활영역 (일요일)	양부모 (N=1145)	한부모 (N=67)	차이	t값
개인유지	638.8(120.0)	610.2(112.50)	28.6	1.91
일	213.2(239.1)	302.1(270.0)	-88.9	-2.94 ***
학습	0(0)	0(0)	0	
가정관리	221.6(121.2)	162.5(108.5)	59.0	3.90 ***
가족 보살피기	39.6(65.8)	11.3(27.7)	28.3	7.24 ***
참여 및 봉사활동	1.9(17.5)	0(0)	1.9	3.67 ***
교제 및 여가활동	235.2(149.3)	252.1(177.0)	-16.9	-0.77
이동	79.9(80.6)	91.9(88.2)	-12.1	-1.19
기타	9.9(14.9)	9.9(13.5)	0	0.03

*** p< .001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요일의 경우 '일'의 시간은 두 집단 모두 평일보다 줄었지만 한부모가족의 수입노동시간이 더 많은 것은 여전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부모가족 취업모의 '일'의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의 시간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봐야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대분류에 의거하여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분석자료제시가 제한되어 단지 가능성만을 유추하고자 한다. 한부모가족 취업모의 '일'의 시간이 많은 것은 우선 유급의 시간이 양부모가족 취업모 보다 많을 수 있다. 그것은 한부모가족 취업모의 취업선택 조건이 양부모가족의 경우와 상이하다는 점에서 계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양부모가족 취업모의 경우 1차 소득원인 배우자(일반적으로)의 수입노동이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부수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수입노동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반해, 한부모가족 취업모의 경우 생계를 위해 그 선택이 보다 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상황이 특히 토요일의 '일' 시간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이것은 각 집단의 직업지위나 소득계층 등을 통제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명확한 관련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의 다양한 휴일방식(이를테면 조사대상의 정기휴일이 1주에 1번인 경우도 있고, 2주에 한번인 경우도 있고, 수시로 쉬는 경우도 있었음.), 무급의 일 등과 관련되리라고 본다.

다음으로 가정관리 시간을 보면 두 집단 모두 평일과 토요일은 비슷한 시간 양을 나타냈는데, 양부모가족의 경우 3시간을,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2시간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인데 반해, 양부모가족 취업모의 경우는 50분 정도 더 많은 3시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에도, 양부모가족 취업모는 3시간 40분 정도, 한부모가족 취업모는 2시간 40분 정도로, 일요일에도 대략 1시간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제한되었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차이가 어떤 요인과 관련되는지, 즉 가족구성, 경제적 여건, 가정관리태도, 수입노동시간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족보살피기 시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양부모가족 취업모는 40~50분 정도, 한부모가족 취업모는 10~25분 정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부모가족 취업모의 경우 시간사용의 속성상 '일'의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고, 여기에 한부모가족 비취업모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자녀수, 자녀의 연령, 남편의 부재), 심리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의 모가 양부모가족의 모보다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시간을 덜 쓰고 있다는 사실은 모의 취업여부 보다는 다른 요인, 즉 가족구성이라든가 심리적 특성 등과 관련됨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위의 세 영역 외에도 평일에는 학습시간에 있어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은 학습시간이 전혀 없었다. 일요일에는 참여 및 봉사활동 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부모가족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와는 달리 참여 및 봉사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비취업모와 비교해 볼 때 두 집단 모두 2시간 이상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두 집단 모두 평일과 토요일에는 3시간을 약간 밑돌고, 일요일에는 4시간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수입노동시간의 증가가 가사노동시간(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그 감소보다는 여가시간(교제 및 여가활동)의 감소의 폭이 더 크다는 Robinson의 지적(조희금, 2000 재인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3)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취업부의 생활시간 비교분석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두 집단간 평일과 토요일의 가정관리 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양부모가족의 취업부는 가정관리에 12분 정도, 한부모가족의 취업부는 40분 정도로 양부모가족 취업부 보다 30분 정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부모가족의 취업부는 경제적 부양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히 기대되는 결과이나, 한부모가족 부의 가정관리시간은 양부모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모의 가정관리시간과 비교한다면 크게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일별로 보았을 때 두 집단간 차이는 토요일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약 1시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 취업부의 경우 평일에 미처 못한 가정관리 활동을 수입노동시간이 적은 주말에 미뤄왔다 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일요일에만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족보살피는 시간은 취업모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업부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에서 더 적게 나타났다.

비록 적은 차이기는 하지만 '참여 및 봉사활동', '학습'영역에서도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족 취업부의 경우 전혀 이 두 영역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 그 외에 이동이나 기타 영역에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통계적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의 시간에 있어서 양부모가족의 취업부와 취업모간 차이를 한부모가족 취업부와 취업모간 차이와 비교해 보면, 보다 큰 시간차를 통해 양부모가족 취업모는 2차 소득원으로서의 취업의 성격을 띠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취업여부, 성별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부·모가 양부모가족 부·모보다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쓰는 편이고, 가정관리에는, 한부모가족의 모가 양부모가족의 모보다 적은 시간을 쓰는데 반해, 부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 표 5 >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취업부의 생활시간 비교

단위 : 분(평균,SD)

생활영역 (평일)	양부모 (N=4220)	한부모 (N=62)	차이	t값
개인유지	597.5(87.8)	605.9(101.8)	-4	-0.75
일	478.5(165.9)	449.3(223.1)	29.2	1.03
학습	0.9(15.4)	0(0)	0.9	3.66 ***
가정관리	12.2(31.3)	40.8(66.3)	-28.6	-3.39 **
가족 보살피기	11.0(28.2)	7.6(19.9)	3.4	1.32
참여 및 봉사활동	1.9(18.2)	0(0)	1.9	6.71 ***
교제 및 여가활동	217.9(126.7)	228.0(154.9)	-10.1	-0.51
이동	113.9(78.1)	90.9(54.0)	14.8	2.13 *
기타	6.4(11.5)	9.4(13.9)	-3.0	-1.69
생활영역 (토요일)	양부모 (N=2012)	한부모 (N=30)	차이	t값
개인유지	602.1(100.5)	613.3(102.9)	-11.2	-0.60
일	416.2(201.3)	402.7(213.1)	13.5	0.37
학습	0.4(18.7)	0(0)	0.4	1.79
가정관리	18.6(42.6)	79.0(96.4)	-60.4	-3.43 **
가족 보살피기	13.3(37.4)	8.0(14.2)	5.3	1.93
참여 및 봉사활동	1.5(17.8)	3.3(18.3)	-1.8	-0.55
교제 및 여가활동	256.1(140.9)	227.0(126.9)	29.1	1.07
이동	125.4(91.7)	95.3(64.4)	30.1	2.52 *
기타	6.1(12.6)	11.3(13.8)	-5.2	-2.24 *
생활영역 (일요일)	양부모 (N=1995)	한부모 (N=26)	차이	t값
개인유지	660.6(128.4)	638.1(123.1)	22.5	0.89
일	229.2(260.7)	311.9(254.2)	-82.7	-1.61
학습	0.1(5.6)	0(0)	0.1	1.00
가정관리	29.5(56.4)	55.0(75.8)	-25.5	-1.71
가족 보살피기	22.6(53.0)	7.3(18.5)	15.4	4.03 ***
참여 및 봉사활동	1.7(18.5)	0(0)	1.7	4.14 ***
교제 및 여가활동	368.5(199.9)	329.2(203.7)	39.2	1.00
이동	79.9(109.0)	91.9(73.7)	-12.1	1.57
기타	6.7(13.20)	11.2(14.5)	-4.5	-1.73

* p< .05 ** p< .01 *** p< .001

그리고 '일'의 시간이 많은 순서는 대략 양부모가족의 취업부, 한부모가족의 취업부와 취업모, 양부모가족의 취업모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를 합친 총체적인 노동 시간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족 취업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한부모가족의 취업부와 취업모의 생활시간 비교분석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경제적 부양과 가사노동이라는 두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부·모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그들의 생활시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주로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가정관리에 쓰인 시간을 요일별로 보

< 표 6 > 한부모가족 취업부와 취업모의 생활시간 비교
단위 : 분(평균,SD)

생활영역 (평일)	부 (N=62)	모 (N=124)	차이	t값
개인유지	605.9(101.8)	576.0(108.4)	29.9	1.81
일	449.4(223.1)	438.9(188.7)	10.4	0.33
학습	0(0)	0(0)	0	
가정관리	40.8(66.4)	133.8(70.7)	-93.0	-8.63 ***
가족 보살피기	7.6(19.9)	16.4(28.4)	-8.8	-2.46 *
참여 및 봉사활동	0(0)	6.7(56.4)	-6.7	-1.31
교제 및 여가활동	228.0(154.9)	172.4(115.30)	55.6	2.50 *
이동	99.0(54.0)	86.4(64.6)	12.6	1.40
기타	9.4(13.9)	9.4(54.0)	0	-0.02
생활영역 (토요일)	부 (N=30)	모 (N=60)	차이	t값
개인유지	613.3(102.9)	564.2(122.1)	49.1	1.89
일	402.7(213.1)	438.3(215.6)	-35.7	-0.74
학습	0(0)	0(0)	0	0
가정관리	79.0(96.40)	136.7(91.3)	-57.5	-2.77 **
가족 보살피기	8.0(14.3)	24.5(48.5)	-16.5	-2.43 *
참여 및 봉사활동	3.3(18.3)	1.5(11.6)	1.8	0.50
교제 및 여가활동	227.0(126.9)	172.5(132.9)	54.5	1.86
이동	95.3(64.4)	92.8(76.20)	2.5	0.15
기타	11.3(13.8)	9.7(13.3)	1.6	0.55
생활영역 (일요일)	부 (N=26)	모 (N=67)	차이	t값
개인유지	638.1(123.1)	610.2(112.50)	27.9	1.05
일	312.0(254.20)	302.1(269.7)	9.8	0.16
학습	0(0)	0(0)	0	0
가정관리	55.0(75.80)	162.5(108.5)	-107.5	-5.40 ***
가족 보살피기	7.3(18.5)	11.3(27.9)	-4.0	-0.81
참여 및 봉사활동	0(0)	0(0)	0	0
교제 및 여가활동	329.2(203.7)	252.1(176.8)	77.1	1.81
이동	87.3(73.7)	91.9(88.2)	-4.6	-0.24
기타	11.2(14.5)	9.9(13.5)	1.3	0.41

* p< .05 ** p< .01 *** p< .001

면 각각 부/모가 40분/130여분, 80분/137분, 55분/160여분으로 모가 월등히 많으며, 그 차이는 평일과 토요일에 더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우선적인 원인을 분석대상의 가족구성형태, 즉 한부모가족의 취업모와는 달리 취업부는 부모 및 다른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서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가족구성이 한부모로 재구성되었을 때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과 함께 수입노동도 하는 것을 비교적 당연시하는 것에 비해 한부모가 된 남성이 가사노동하는 것을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역할을 다른 여성, 이를테면 어머니나 형수 혹은 누이 등이 대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자신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으로 재구성되었을 때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또한 부모형제와 동거하지 않았어도 한부모가족으로 되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높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이혼의 경우 한부모가족이 됨은 곧 남성의 어머니와도 헤어짐을 의미하고, 사별의 경우 같이 살던 시 어머니가 다른 아들에게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정관 시간의 차이는 이러한 부모형제의 지원 외에도 한부모가족 부·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가족보살피는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에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두 집단 모두 가족보살피는 시간의 양이 매우 적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관련요인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그리고 평일에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의 경우 3시간 50분 정도의 여가시간을 갖는데 비해 모의 경우는 여가시간이 3시간이 채 못된다. 비록 주말에는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그 양상은 평일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은 학습에 쓰인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과 '참여 및 봉사활동' 영역에 쓰인 시간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비록 양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이 영역에 할애된 시간은 적지만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상에서 '일'의 시간과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시간을 합친 총노동시간을 보면 취업부의 경우 각 요일별 500분/490분/380분 정도이고, 취업모의 경우 590분/590분/465분으로 모의 노동시간이 많으며, 또한 모가 가족을 위해 쓰는 시간(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많은데 비해 부는 상대적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을 더 쓴 셈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부모가족의 부모다는 모에게 역할과중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연구(김정자,1985)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 양부모가족의 경우와 비교할 때, 한부모가족의 경우 모는 취업에 관계없이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더 적었고, 취업부는 가정관리시간

은 더 많았지만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더 적었다.

비록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에서는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 영역은 사용된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시간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VI. 사례면접을 통한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 분석

심층면접은 모두 5 건이다. 대상자는 청주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여성단체로부터 소개를 받은 모 4명, 부 1명이며, 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7>과 같다.

부자가족인 사례 5를 제외한 나머지 네 사례는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이며, 특히 사례 1과 2는 한부모가족 비취업모로, 현재 정부로부터 공적부조를 받고 있고,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주 월~금 5일 1일 4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음)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례 3,4,5는 전일제 취업으로 일을 하고 있다. 자녀의 수는 2~3명이었고, 자녀의 연령으로 보면, 사례1,2는 초등학교 자

< 표 7 > 사례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 례	성 별	연 령	교육 수준	자 녀	혼자된 사유, 기간	건강 정도	직 업	자산, 월소득
사 례 1	여	41	고졸	1남(11세) 1녀(9세)	이혼, 3년	류마 티스 관절 염	직업 교육중, 과거 산악인	10평 원룸, 정부보조 월50만원
사 례 2	여	40	전문 대졸	2남(10,6세) 1녀(4세)	이혼, 2년	풍치	과거에 보험 회사근무 직업 교육중	(보증금 소액) 초등학교 사택, 정부 보조 월80만원
사 례 3	여	43	고졸	1녀(19세) 1남(16세)	사별, 3년	보통	과거에도 직장 일을함 종교재단에 서 간병인 (50인) 관리	19평 임대주택, 월 60만원
사 례 4	여	49	고졸	2남 (19,17세)	사별, 3년	양호	회사 경리	30평 아파트 (자가)
사 례 5	남	48	고졸	3녀 (19,17,15세)	이혼, 6년	양호	회사 관리직	연봉 3000만원 26평 아파트 (자가), 1700평 과수원

녀를 두고 있고, 사례3,4,5는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다. 다른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는 없었고, 가족은 부 혹은 모와 자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형태였다. 배우자와 이별한 사유를 보면 사례 1,2,5는 이혼에 의해서인데,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사례 1은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사례 2는 남편의 습관성 의도 때문에, 사례5는 부인의 채무문제로 혼자가 되었다고 하였다. 사례 3,4는 사별에 의해서 혼자되었다. 그리고 혼자된 기간은 주로 2~3년이며, 사례 5만이 6년이 되었다.

심층면접 방법은 먼저 각 대상자에게 대해 평일과 일요일의 생활시간을 회상케 하여 시간일지표를 작성하였고, 그 자료를 참고로 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생활영역 중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그리고 여가 시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 영역의 활동내용은 대략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의 영역별 활동에 의거하였다.

1. 가정관리 : 식사준비 및 정리

가정관리 영역은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는데, 그 중 식사준비 및 정리는 대부분의 가족에게 필수적인 가정관리활동이기 때문에 사례 수가 적은 본 연구로서는 한부모가족의 가정관리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이 부분의 시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면접대상의 시간일지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평일과 일요일의 식사준비 및 정리 시간이 직업교육 중인 사례 1과 2는 각각 60분/60분, 60분/70분이었고, 전일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례 3,4,5는 각각 20분/90분, 30분/60분, 30분/0분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기영(1996)의 연구에서 일반가족의 경우 식생활 시간이 평일에는 시간제 취업주부가 1시간 56분, 전일제 취업주부가 1시간 27분, 휴일에는 시간제 취업주부가 1시간 54분, 전일제 취업주부가 1시간 51분을 각각 쓰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특히 중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생이 있는 경우보다 그 시간이 크게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평일과 일요일을 비교하면, 부자가족인 사례 5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식사준비 및 정리 시간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례 5는 네 모자가족보다 식사준비 및 정리 시간이 전반적으로 적으며 특히 일요일에는 전혀 그 시간을 쓰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식사준비 및 정리의 실태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이들의 평일의 식사준비 횟수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자녀를 둔 사례 1,2는 아침과 저녁 식사 두 끼를 준비한다고 하였고,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사례 3,4,5는 아침 한 끼만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가 평일에 아침 한 끼만을 준비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침만 준비해서 애들 맥이면 그거루 식사준비는 끝나죠 애들이 저녁 늦게 오기 때문에 저녁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보통 퇴근해서 그냥 혼자 찬밥 차려 먹어요 애들은 학교 매점이나 학교 가까운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을 사먹어요(사례 3).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보통 저녁 늦은 시간(보통 저녁 10시 반에서 11시정도)에 귀가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양부모가족의 경우도 비슷하겠지만 차이점은 양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자녀가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다 해도 남편과의 저녁식사를 위해 식사준비도 하고 식탁도 차리게 되므로 한부모가족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례 1,2의 경우, 점심식사는 자녀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하고 오기 때문에 하루 두 끼만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모두 아침, 저녁 두 끼만을 준비한다고 하였는데, 따로 점심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자신만(사례 3) 혹은 자녀들과 교회에서 점심식사를 하거나(사례 1,2), 자녀들이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학교 혹은 독서실에 가기 때문에 밖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였다(사례 3,4). 결국 일요일이지만 모든 사례가 두 끼만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자가족인 사례 5는 일요일이면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어머니가 사시는 시골로 가서 여가 삼아 농사일을 돌보기 때문에 가사노동은 전혀 하지 않고, 이 때의 모든 가사노동은 딸들의 몫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식사준비 횟수가 자녀들의 연령 혹은 (학교 혹은 학원)생활시간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만의 특성도 관련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사노동과 직장 일을 병행해야 하는 취업주부의 경우 시간제약을 경험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면접대상 중 취업주부인 사례 3과 4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이들의 도움(가사보조)이 굳이 필요치 않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늦게 와서도 그렇고, 고3인 아이를 맡고 있는 남자아이인데 굳이 그 아이들에게까지 시킬 정도로 일이 많지 않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사례 5의 가족의 경우에는 딸들의 가사분담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는 아침식사만 준비하고 설거지는 저녁에 딸들이 귀가하는 대로 일찍 오는 사람이 한다고 하였다. 직장 동료들에게 할아비 티를 안 내려고 일부러 직장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식사는 직장에서도 먹고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한다고 하였다. 부와 딸들로 구성된 사례 5의 가정에서는 설거지뿐만 아니라 빨래 개키기 및 정리, 청소 등도 딸들과 분담을 하고 있었다.

적어도 본 연구에서는 같은 한부모가족이라도 한부모가 부인지 모인지에 따라 가사보조 혹은 가사분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식탁에 놓여지는 반찬은 사례 1~4 모두 국이나 찌개, 김치, 그 외의 반찬 하나(많으면 둘) 정도라고 하였는데, 이들이 한 달에 쓰는 부식비는 대략 15~20만원 정도라고 하였다. 이들 모자가족 네 사례 모두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사노동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모자가족의 경우 식사준비에 있어서 남편의 부재가 식사준비를 소홀하게 하는데 한 이유가 됨을 언급하였다. 즉 과거 남편이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반찬에 신경을 썼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남편이 없으니까 반찬에 신경을 덜 쓰게 되지요 냉장고 열어봐서 먹을 반찬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놓고 먹지요 되는대로 먹어요 또 하려면 귀찮기도 하구(사례 4).

부자가족인 사례 5는 집에서 직접 준비하는 것은 밥과 국(혹은 찌개)뿐이고, 식탁에 오르는 반찬은 김치를 제외하고는 주로 시장에서 사다 먹으며, 김치는 누나나 형수가 갖다 준다고 하였다. 반찬을 시장에 의존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이혼한지 꼭 6년이 됐는데,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음식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냥 그냥 밥은 하겠는데, 반찬은 죽어도 못하겠어요 지금도 할 수 있는 반찬은 아무 것도 없어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로 하지만 정말 반찬 만드는 것은 못하겠어요

즉 부자가족의 부는 가사노동의 사회화 방법을 통해 적용하면서 식사준비시간을 줄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체로 주부들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반찬에 신경을 쓰게 하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한부모가족 중 모자가족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식탁의 형식을 요구하는 존재라고 인식되는 남편이 없음으로 해서, 반면 부자가족의 경우는 새로이 가사노동을 시장에 의존하거나 혹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가사지원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이 이들의 가정관리 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자녀를 위한 간식준비도 가사노동의 중요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례 3,4,5의 경우 고 3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가족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히 자녀를 위해 간식을 준비하는 시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자녀를 둔 사례 1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간조사 요일에는 하지 않았지만 가끔은 요리 책을 보고 아이들 간식을 집에서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주로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다.

돈만 있다면 다른 아이들처럼 우리 애들한테도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이고 싶은데, 여유가 없으니까 집에서 만들어 주죠(사례 2)

이상에서 볼 때 한부모가족의 식사준비 및 정리에 쓰이는 시간에 여러 가지 요인, 즉 한부모의 성별, 경제적인 여건, 남편의 부재, 자녀의 연령, 자녀의 (학교 혹은 학원)생활시간, 부모의 종교생활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보살피기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분석에서 한부모가족의 부·모가 양부모가족의 부·모보다 가족보살피는 시간이 적었다. 본 사례면접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와 중 고등학생을 둔 경우 가족보살피는 시간과 태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었다 먼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사례 1과 2의 자녀돌보는 시간을

보면, 사례 1의 경우 평일에는 1시간 30분, 일요일에는 20분 정도였고, 사례 2의 경우 평일에는 2시간 정도, 일요일에는 3시간 30분 정도였다.

사례 1의 경우 마침 조만간 있을 컴퓨터 시험 때문에 아이들 학교의 시간을 평소보다 적게 가진 셈인데, 특히 일요일에는 전 가족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적다고 하였다. 사례 2의 경우는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를 못해서 본인이 직접 학습지도를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세 사례(사례 3,4,5)의 경우 자녀돌보는 시간은 시간사용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등교시 차로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사례 5, 20분 정도 소요),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고3 딸 마중가기(사례 3, 15분 정도 소요) 정도였고, 오히려 자녀들이 학교에서 늦게 귀가함에 따라 자녀를 보살피는 노력과 시간이 별로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 사례 5는 딸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가끔씩 5~10분 정도 1:1 면담을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녀돌보는 시간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심리적으로 자녀의 입시준비에 크게 매몰되어 있지도 않았고, 어느 대학에 어떻게 갔으면 혹은 어느 직장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표현하였다. 즉 자녀 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심리적으로 포기한 듯한 태도였다. 이러한 태도는 도시 중산층의 고 3 자녀를 둔 모에 대한 심영희의 연구(1996) 결과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즉 이들의 자녀에 대한 낮은 몰입은 중산층의 일반가정에서 자녀를 더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 현재의 우리 입시경쟁이나 취직난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부모의 삶을 자녀세대에 재생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한부모가족이라는 조건만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다른 요인, 이를테면 경제적 여건 등이 주된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본 사례면접대상이 전일제 취업자이거나 직업교육중인 상태이므로 자녀돌보는 시간을 시간제약의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이라는 이중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시간제약의 문제를 토로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시간이 부족해서 자녀보살피는 시간이 적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부모가족 면접대상들의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경제적 여건, 자녀의 연령, (학교 혹은 학원)생활시간, 부모의 종교생활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여가

오늘날 가족이 중요한 여가집단으로 기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여가활동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면접대상

들의 여가의 특징은 가족단위의 여가는 거의 없고, 주로 개인적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활동(주로 종교활동과 TV 시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편중성은 우선 사례 1, 2, 3이 종교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사례 1(다음 날이 컴퓨터 시험이어서 성경공부 시간을 줄였다고 함)은 평일에는 1시간을, 일요일에는 5시간 정도를 썼고, 사례 2의 경우 평일에는 3시간 25분, 일요일에는 5시간 10분 정도를 썼으며, 사례 3은 평일에는 4시간 45분, 일요일에는 6시간 50분 정도를 썼다. 이들은 비는 시간만 있으면 교회에 간다거나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혼 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를 간다고 하였다. 혼자된 후의 어려움을 신앙생활이 아니면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혼자된 지 대략 2,3년 정도 되었고, 이혼하는 과정까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상황, 그리고 현재의 단절된 인간관계 등이 종교생활에의 몰입과 무관하지 않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TV 시청 시간을 보면 사례 1, 3, 5의 경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였고, 사례 2의 경우는 거의 TV 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례 4의 경우는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 시청으로 나타냈다. 사례 4는 다른 사례와는 달리 종교활동도 없고, 친구나 친척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으며, 특별한 취미생활도 없으며, 주로 퇴근하여 집안 일을 끝내놓고 나머지 시간(평일에는 2시간 정도, 일요일에는 3시간 30분 정도)에는 혼자 TV를 본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인터넷은 이들에게 정보부족을 보완하고 또 단절된 인간관계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사례 2는 평일에 반드시 1시간 정도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하고, 또 베타시장과 같은 정보신문을 읽는다고 하였다(아이들의 옷, 아이들을 위한 어학 테이프, 책, 가구, 가전제품 등을 모두 이런 정보를 통해 남들이 쓰던 물건을 얻는다고 하였다). 사례 5는 평일 1시간 20분 정도 인터넷 검색을 하였는데, 인터넷 접속을 통해 혼자된 사람들과의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가끔 만남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런 점은 앞으로 한부모가족 정책에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면접대상들은 공통적으로 가족단위의 여가가 위축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과거에 남편(아내)이 있었을 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웬지 아이들하고 가족이 함께 놀러 가지지가 않아요. 나가서 보면 웬지 우리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언제 저런 때가 있느냐 싶기도 하구. 외식도 자주 안 하게 되요. 돈도 없지만, 가봐도 별로 흥이 나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구. 또 애들이 크니까 시간도 잘 안 맞아요. 일요일에도 공부한다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사례3).

과거에는(한부모가족이 되기 이전) 가족단위로 놀이를 가거나 외식을 많이 하였는데 지금은 가족이 함께 놀이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간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사례 2만이 가끔 일요일에 외식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가족단위 놀이의 취약은 변화순 외의 연구결과(변화순 외, 2001)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녀의(학교 혹은 학원)생활시간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도 가족단위의 여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이들 시간 때문에 같이 놀러 다니지 못한다고도 하였다. 관련연구를 통해서 보면 가족소통 및 외식은 자녀가 한창 성장하는 단계에서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든지(김외숙 외, 2000),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자녀의 취학전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다는(지영숙, 2001) 보고도 있다.

본 연구의 사례면접대상인 한부모가족의 여가의 문제는 단순히 시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가내용에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I. 결론 및 제언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와 모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생활시간에 관련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사례면접을 하였다.

생활시간조사 분석 결과 양부모가족의 부·모와 비교할 때, 한부모가족의 경우 모는 취업에 관계없이 양부모가족의 모보다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더 적었고, 취업부는 양부모가족의 취업부보다 가정관리시간은 더 많았지만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더 적었다. 그리고 총 노동시간은 한부모가족의 모의 경우가 양부모가족의 부와 모, 한부모가족의 부의 경우보다 많았다.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은 대체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사례면접의 결과 한부모가족 부·모의 가정관리-식사준비 및 정리, 가족보살피기 및 여가의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식생활 수준이 열악한 편이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사수행에 대한 자아역할인식도가 낮고, 배우자 부재로 인한 상실감으로 생활에의 의욕도 낮아 식사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식사준비 및 정리(가정관리) 시간도 적었다. 가족수가 적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또한 자녀에 대한 몰입도도 낮은 편이었는데, 이중역할로 인한 역할과중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의욕상실과 소외감 등과 관련하여 가족보살피기에 적은 시간이 할애되었을 것으로 본다. 여가시간은 종교활동이나 TV 시청과 같은 특정활동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교제의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외 소외감, 정보부족 등도 관련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비록 시간의 양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교제 및 여가시간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같은 한부모가족이라도 자녀의 연령은 가정관리, 가족보

살피기, 여가 등의 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시간사용에 대한 양적 접근은 가족의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그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접근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주된 문제를 보면, 모자가족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며, 부자가족의 경우는 가사수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중요한 문제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등에 의해 저소득 가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대상 또한 제한적이다. 따라서 재정지원정책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저소득의 부자가족과 여성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통합차원에서 다양한 가사지원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즉 공적지원체계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가사지원 프로그램 등도 개발·확대하며, 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가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야유회, 문화행사 참여 등)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는 있으나 이는 한부모가족의 상실감, 소외감을 완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종합적인 한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부모로서의 현실인식과 적응, 가족관계의 재정립, 취업(혹은 재취업)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한부모가족으로서 적응을 도와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하며, 일정수준의 생활표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부모가족의 정보망을 구축하여 한부모가족간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나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해도 정보가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가생활, 생활자원(현책, 헌옷, 가구, 가전제품 등)획득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공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를 관리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경제적 제약이 심각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러한 정보활용은 간접적으로 소득효과를 노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시간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분석 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 등도 포함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자료 활용도가 증폭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영화·조희금(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김의숙·조희금·두경자(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교문사.
 김윤정(2001).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김정자(1985).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6(3), 30-78.
 문숙재·윤소영(2003).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13-220.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2).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석도보라·이기영(1999). 부부의 자기역할인식과 사회화저항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71-185.
 심영희(1996). 시간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12(2), 1-42.
 이기영 외(1996).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이기영·구혜령(1999).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67-178.
 정영금(1999). 가정노동의 지원체계확립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83-92.
 정영금(2000). 가족자원관리학 분야 연구의 사회적 기여와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231-241.
 조홍식 외 3(2001). 여성복지학. 학지사.
 조희금 외 2(2000). 한일양국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수, 입노동시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14.
 지영숙·이태진(2001). 도시가정의 가족여가유형-자녀 교육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53-165.
 최경석 외 5(2001).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통계청(1999). 「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한국여성개발원(2002). 여성통계연보.

- 접수일 : 2003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03년 09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0월 13일